

교차하는 계층질서가 만들어내는 ‘무지한 스승’의 급진적 서사 : 강경애의 『인간문제』

배상미

와세다대학교 국제교양학부 준교수

목차

- 1 들어가며
- 2 가부장 중심의 계층질서에서 (유사) 기혼 여성들의 불안정한 위계
- 3 가부장 중심의 계층질서와 거리를 둔 10대 여성들의 평등한 관계
- 4 경쟁하고 충돌하는 계층질서가 만들어내는 급진적인 효과
- 5 결론

이 연구는 캐롤라인 레빈의 『형식들: 문학도 사회도 문제는 형식이다』에서 소설에 나타난 형식들로 텍스트를 분석하는 방법 중 특히 계층질서에 주목하여 강경애 장편소설 『인간문제』를 살폈다. 소설 안의 여성 인물들을 설명하는 계층질서 형식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궁극적으로 급진적인 정치로 나아가는 과정은 이 연구가 밝히고자 하는 핵심이었다. 결혼한 여성 혹은 첩들은 공통적으로 가부장적 계층질서에서 열악한 위치에 있지만, 그녀들 사이에 존재하는 다른 계층질서가 그녀들의 연대를 가로막는다. 10대 여성들인 선비, 간난, 옥점은 비격식체를 사용하여 그들 사이의 계층질서를 불확실하게 만든다. 하지만 옥점은 그녀의 특권을 보장해주는 원소의 계층질서에 천착하여, 기존의 질서를 전복하려는 의도를 가진 선비와 간난이의 연대에 참여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선비는 스스로 깨우치고 스스로 가르치는 과정을 거쳐 자신이 첫째와 같은 동질적인 계급들보다 더 지적으로 성장하여, 이를 바탕으로 젠더와 자본주의의 계층질서를 방해하는 새로운 급진적 실천으로 나아간다.

국문핵심어: 인간문제, 계층질서, 여성 인물, 연대, 급진적 정치, 젠더, 계급

1 들어가며

이 논문은 강경애의 소설 『인간문제』의 형식적 특성을 분석하여, 이 소설이 당대 사회의 계층질서(hierarchy)와 이에 포섭되지 않는 실천들을 어떻게 재현하는지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강경애의 소설을 페미니즘적 텍스트 여부, 사회주의적 텍스트 여부, 여성혐오적 텍스트 여부라는 이분법이 아닌, 교차하는 계층질서의 형식들이 충돌하면서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형성하는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강경애의 『인간문제』를 해석하는 방법은 한국사회의 변화에 따라 달라져 왔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의 강경애 소설은 이 소설에 재현된 젠더보다 당대의 빈곤한 현실, 황해도의 원소 전설을 이용하여 자본주의 사회를 넘어서는

전망,¹ 1930년대 노동계급 여성의 일생을 이용한 목적의식적 프롤레타리아 문학,²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을 재현한 텍스트로 독해되어왔다.³ 이들과 달리 서정자의 경우 강경애의 『인간문제』를 장자 출산, 성폭력, 젠더화된 노동환경을 재현하는 텍스트로 분석하여 다른 연구들보다 선구적으로 페미니즘 이론을 도입하였다.⁴ 이후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강경애의 소설을 페미니즘 연구방법론으로 분석하려는 연구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강경애의 문학은 주로 한국문학 연구자들에 의해 분석되었지만, 사회학자로서 『인간문제』를 살핀 강이수는 이 소설에 재현된 공장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 등이 당대 현실을 어떻게 실감나게 묘사하였는지 분석한 후, 이 소설이 동질적인 계급의 남녀 사이에는 마치 억압이 없는 것처럼 묘사하여 젠더 문제를 계급 문제에 종속되는 것처럼 재현하였다고 비판한다.⁵ 이는 『인간문제』가 성차별을 계급차별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질 문제, 즉 전형적인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의 시각에 입각해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이수의 논문 이후 『인간문제』는 가부장적 텍스트, 가부장적 시각을 내면화하였지만 여성의 목소리가 드러난 텍스트, 혹은 여성의 경험을 페미니즘적 시각으로 재현한 텍스트 등⁶ 상반된 시각들이 서로 대립각을 세우면서 연구가 진행

-
- 1 이상경, 「강경애론: 30년대의 궁핍형소설고」, 『한국학보』 제10권 제4호, 일지사, 1984, 135-174쪽.
 - 2 김윤식, 「강경애론」, 『(속)한국근대작가론고』, 일지사, 1981, 238-245쪽.
 - 3 서정자, 「강경애연구: 새로운 평가를 위한 시고」, 『원우논총』 제1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원우회, 1982, 19-21쪽. 서정자는 신철이 자신의 기득권을 버리고 노동운동에 헌신하므로 『인간문제』가 휴머니즘적 텍스트로 독해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임금복, 「강경애 소설에 나타난 지식인 연구(Ⅱ)」, 『국제어문연구』 제13호, 국제어문학회, 1991, 552-559쪽. 임금복은 『인간문제』의 남성 지식인들을 구지식인, (반동적) 소부르주아 지식인으로 나누어 각각의 성격과 이들이 서사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규명한다.
 - 4 서정자, 「일제강점기 한국 여류소설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7, 60-91쪽.
 - 5 강이수, 「사회학자가 본 우리소설 식민지하 여성문제와 강경애의 『인간문제』」, 『역사비평』 제24호, 역사비평사, 1993, 335-348쪽.
 - 6 이상의 연구 분류는 배상미의 「식민지시기 무산계급 여성들의 사적영역과 사회변혁: 강경애 문학을 중심으로」(『상허학보』 제44호, 상허학회, 2015, 358-359쪽)를 참고하였으며, 각각의 경향에 해당하는 연구성과들은 이 논문을 참고하라. 이 논문 이후에 간행된 연구들인 송인화, 「‘모던 걸’의 공포와 ‘동지’의 수사학: 『인간문제』에 나타난 강경애 사회주의 여성 의식 재고(再考)」(『여성문학연구』 제47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9)나 박구비, 「여성

되었다. 흥미롭게도, 이 강경애 연구들은 대부분 강경애의 생애, 그리고 그녀의 다른 작품들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문제』를 독해한다.⁷ 즉, 이들 연구들은 『인간문제』라는 텍스트만이 아닌 강경애라는 작가의 성격, 나아가 이에 근거한 강경애 작품 전체의 성격을 어떻게 규명할 것인가를 두고 논쟁한다. 이 연구들은 작가의 작품에서 특정 사회 현상이나 대상을 재현하는 방식을 토대로 이 작가의 성향을 규정하고, 다시 이를 바탕으로 다른 작품을 연구하기 위한 토대로 삼는다. 이러한 연구들 중 위의 연구 경향의 세 번째에 속하는 사무엘 페리의 논의 역시 강경애라는 작가가 어떤 작가인지 논문을 통해 규명하고자 하지만, 그의 논문의 주요 질문은 『인간문제』라는 텍스트를 서구의 문학 정전과 비교해보았을 때 “충분한 문학적 자질”⁸을 갖추었는지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는 이 텍스트가 생산된 시대 및 매체와 같은 물질적 조건과 성장소설의 형식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이 논문은 『인간문제』를 상업주의를 무시할 수 없는 신문인 동아일보가 허용한 범주 안에서 적절한 미적인 방식을 선택해 “식민지 조선의 근대성에 대한 여성 작가의 경험을 담아내기에 더 적합한 혁명적 소설을 창작하는 오래된 어려운 과제”⁹를 수행한 텍스트로 분석해낸다. 페리의 연구는 『인간문제』에 나타난 성장소설의 형식이 시대적이고 상업주의적인 한계를 넘어서서 저자가 의도하는 메시지를 담아내기에 적절하다고 본 것이다.

이 논문은 페리의 연구에서 『인간문제』의 형식에 주목한 방법론을 발전시

들 사이, 역설의 글쓰기)(『이화어문논집』 제51호, 이화어문학회, 2020)에서도 이 같은 경향은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감성을 중심으로 『인간문제』의 성격을 재구성하려는 연구(이경립, 「사랑의 사회주의적 등정의 불가능성」, 『한국현대문학연구』 제55호, 한국현대문학회 2018; 최병구, 「프로문학의 감성과 여성, 공/사 경계 재구축의 구조: 강경애 문학을 중심으로」, 『구보학보』 제23호, 구보학회, 2019)도 간행되고 있는데, 이 연구들 역시 각각 강경애를 어떤 작가로 보고 있느냐에 따라 상반되는 결과를 내놓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7 물론, 이들 연구가 강경애의 전기적 사실과 이를 바탕으로 그녀의 소설을 해석하기 위해 동원하는 방법론들은 각 연구마다 차이가 있지만,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다는 점에서 이들 선행연구에서 해석학적 경향성을 찾아볼 수 있다.

8 Samuel Perry, “The Context and Contradictions of Kang Kyŏng-ae’s Novel “In’gan munje”,” *Korean Studies*, Vol. 37,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13, pp.99-100.

9 Ibid., p.119.

켜, 이 소설에 존재하는 다양한 ‘계층질서’들의 ‘형식’들이 서로 교차하면서 어떻게 이 소설을 구성해나가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종종 ‘형식’과 ‘장르’는 서로 구별없이 사용되기도 한다.¹⁰ 레빈은 ‘형식’을 패턴, 형태, 배열과 같은 것으로 사회적이고 문학적인 것에 모두 적용되며 시간이 지나도 안정적인 것으로, ‘장르’를 역사적으로 구체적이며 해석적인 것으로 텍스트를 분류하는 행위이자 시공간에 따라 가변적인 것으로 정의한다.¹¹ 이 논문에서는 형식과 장르라는 용어를 레빈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겠다.

20세기 초중반에 서구,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문학 비평계에서 우위를 차지했던 신비평의 영향력으로 인해, 소설의 형식을 분석하는 방법론은 마치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것을 완전히 배제하고 텍스트 자체에만 집중한다고 간주하는 경향이 존재한다.¹² 캐롤라인 레빈은 저서 『형식들: 문학도 사회도 문제는 형식이다』에서 신비평이 형식적인 것과 역사 사회적인 것을 분리했기 때문에 문학 형식의 분석이 무조건 역사 사회적인 것을 도외시한다는 기존의 인식론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형식 분석은 문학 텍스트의 구조만이 아니라 문학에 재현된 사회정치적 경험의 패턴 역시 포함한다고 재해석하여 “문학 텍스트의 형식과 내용과 맥락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의 문제”¹³를 해소한다. 레빈은 “제한하고 봉쇄”¹⁴하는 형식의 성격에 주목하여 사회의 어떤 ‘형식’들이 소설의 인물과 상황에 제한을 가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물론, 레빈은 사회를 언제나 특정한 형식의 틀 안에서만 설명할 수 없다는 의견에 공감한다. 하지만 사회 안에는 언제나 조직의 원리가 존재하기 때문에,¹⁵ 형식으로 환원될 수 없는 부분들을 이 조직의 원리가 교차하는, 혹은 조직의 원리가 균열을 일으키는 지점들에 주목하여 밝히고자 한다. 레빈의 책은 그녀가 선정한 네 가지 주요 형식인 전체, 리듬, 계층질서, 네트워크를 중심

10 캐롤라인 레빈, 백준걸·황수경 역, 『형식들: 문학도 사회도 문제는 형식이다』, 앨피, 2021, 52쪽.

11 이상 형식과 장르에 관한 설명은 위의 책, 52-54쪽.

12 위의 책, 48-49쪽.

13 위의 책, 29쪽.

14 위의 책, 39쪽.

15 위의 책, 44쪽.

으로 ‘형식’이 문학의 구조는 물론 사회 역사적 맥락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 제시한다.

레빈이 제시하는 주요 형식 중 ‘계층질서’를 중심으로 텍스트의 미적이고 역사 사회적인 형식을 분석하는 방법론은 그동안 여러 시각으로 해석되어 왔으며 상반되는 해석이 공존하는 문제적 텍스트 『인간문제』를 이제까지와는 다른 시각에서 분석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이미 여러 선행연구들이 지적했듯, 『인간문제』의 서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전반부는 농촌 원소에서, 후반부는 도시 서울과 공업지대 인천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다룬다. 이 소설의 서사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공간의 변화는 근대 시기에 농촌과 도시(공업지대)의 이분법과 일치하므로, 한편으로 이 소설의 문학적 그리고 역사 사회적 형식은 근대에 들어서 뚜렷해진 이분법을 바탕으로 구성된 것처럼 보인다. 이뿐만 아니라, 이 소설에서는 여성과 남성, 유산계급과 무산계급, 고용주와 피고용인, 교육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 등과 같은 근대적 계층질서들이 서사의 핵심을 이룬다. 레빈이 질문한 것처럼, 이러한 계층질서들은 서로 교차하면서 어떤 효과를 낳는가? 여기서 더 나아가, 이러한 계층질서들의 교차는 『인간문제』의 해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인간문제』를 계층질서와 이분법의 형식 안에서 분석하는 것이 오늘날의 맥락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논문은 이러한 질문들을 바탕으로 『인간문제』를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2 가부장 중심의 계층질서에서 (유사) 기혼 여성들의 불안정한 위계

농촌마을 원소를 배경으로 한 『인간문제』의 전반부에는 농촌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계급의 여성들이 등장한다. 특히 서로 다른 상황에서 결혼 혹은 출산을 한 여성들을 찾아볼 수 있다. 우선, 선비 어머니는 지주이자 남편의 전 고용주였던 덕호에 의해 남편 민수를 잃고 딸 선비와 단둘이 덕호 집 근처의 별채에서 덕호의 가사일을 도와주며 생계를 이어나간다. 이 소설에서 선비 어머니는 남편의 사망 이후 다른 친지들과의 교류 없이 원소의 사람들과 계속 함께 지낸다. 이러한 그녀의 상황은 선비의 부모 모두가 빈농 출신으로 고향을 떠나 생계를 위해 다른 지

역으로 이주한 까닭에 특별히 의탁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¹⁶ 남편이 사망한 후, 선비 어머니는 남성 가장 없이는 한 가구가 정상적으로 생존하기 어려운 사회조건 하에서 선비를 돌보며 살아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비판한다. 그러나 그녀는 다른 비제도적 가족들, 이를테면 성노동자인 첫째 어머니와 구결하는 장애인 이서방을 중심으로 구성된 첫째 가족과 자신의 가족을 비교하면서, 어찌 되었든 이웃으로부터 문제가 있는 가정이라는 낙인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신의 가정에 자부심이 있다.

그러나 선비 어머니의 가족은 제도적 가족의 범주 밖으로 이탈할 위험에 항상적으로 놓여 있다. 선비 어머니도 그 위험성을 감지하여, 남편이 사망한 이후에도 여전히 덕호에게 충성하며 그를 위해 일한다. 또한, 그녀의 딸 선비를 어서 결혼시켜 이전에 민수와 그녀가 그랬던 것처럼 제도 안에 안착할 수 있는 가구를 구성하도록 돕고자 한다. 그러나 결국 그녀는 선비의 결혼을 보기 전에 사망하고, 선비는 덕호의 집에서 안잠자기로 살아가게 된다. 선비 어머니가 걱정했던 대로 선비는 덕호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 옥점의 예비 신랑으로 점찍어둔 신철을 유혹했다는 이유로 덕호의 집에서 쫓겨난다. 그러나 선비는 선비 어머니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을 택해, 혼자 서울로 이주하여 간난이를 만나 인천의 방직공장에 취직한다. 이는 식민주의, 근대화, 그리고 산업화 이전 사회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여성들의 생존방식이기도 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3장에서 자세하게 논하겠다.

제도적으로 인정받는 가족의 울타리로부터 탈각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은 선비 어머니만이 아니라 이 소설에 등장하는 기혼 여성들 대부분이 공유하고 있다. 특히, 이 위기감은 덕호의 첩들인 신천택과 간난이에게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식민지시기에 ‘첩’은 그 법적 지위를 인정받기도 했으나,¹⁷ 가족제도의

16 농촌 사람들의 재산수준과 이주의 관련성에 관해서는 손병규, 「20세기 전반 농촌 가족의 거주이동: 계층성과 혈연성의 관점에서」, 『대동문화연구』 제112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20, 438-441쪽을 참고하라.

17 승연 임은 식민지 조선에서 총독부가 식민지 조선의 가족등록제도를 일본의 것과 유사하게 바꾸기 위해 부부간의 사랑을 중심으로 가족관계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첩 역시 가족의 일원으로 양육권이나 상속권을 갖게 되는 등 법적으로 가족 내에서 그 지위를 보장받게 되었

근간은 근대적 일부일처제였다.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관습상으로도 첩은 자신의 독자적인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고 그 상대방인 남성의 선호에 따라 지위를 유지할 수도, 상실할 수도 있었던 만큼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불안한 지위에 있을 수 밖에 없었다. 이들의 그러한 상황은 이 소설에서도 잘 나타난다.

“난 정말 그 집에선 못 살겠어. 글썸 안 나오는 아이를 어떻게 하라고 자꼬 들볶으니 글썸 살겠수?”

이제 겨우 이십이 될락 말락 하는 그의 입에서 자식 말이 나올 때마다 선비 어머니는 잔망하게 보았다. 동시에 측은한 맘도 금치 못하였다.

“왜 또 무어라고 허십데까?”

“글썸 요전에 월경을 한 달 건는 것은 선비 어머님도 잘 알지, 그런데 오늘 아침에 그게 나왔구려!”

“나왔어요? 월경도 건너 나오는 수도 있지요.” (…)

덕호가 하늘같이 떠받칠 때는 웬일인지 밋터니만 오늘 저렇게 시름없이 와서 앓은 것을 보니 측은도 하고 우습기도 하였다.

“아니 이제 날 테지, 벌써…… 글썸.“

“그러기 말이예요. 내 나이 삼십이 됐고, 사십이 됐소. 글썸, 그 야단을 할 턱이 뭐겠수.”

신천택은 한숨을 푹 쉬더니,

“난 내일 가겠수, 자꾸 가라니깐 어떡해요.”

“그게야 영감님이 일시 허신 말씀이겠지요.”

그는 머리를 좌우로 흔들고 말소리를 낮추어,

음을 지적한다. 가족법을 근대화하는 과정에서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들이 전근대적 폐단으로 대표적으로 지목한 첩의 존재가 오히려 법적으로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게 된 것이다. (Sungyun Lim, *Rules of the House: Family Law and Domestic Disputes in Colonial Korea*,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9, pp. 81-94) 그러나 덕호의 첩들은 신천택과 같이 매매되거나, 간난이와 같이 농촌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이들로, 가정 내에서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법적 권리를 주장하기는 쉽지 않은 처지였다.

“요새 영감님이 간난네 집에를 단긴다우.”¹⁸

위 인용문은 덕호의 첩 신천택과 덕호를 위해 허드렛일 등을 하는 선비 어머니와의 대화이다. 덕호의 집 안에서 신천택은 선비 어머니보다 더 지위가 높다. 하지만 둘의 대화를 보면, 신천택은 덕호의 결정에 의해서 순식간에 자신의 지위를 상실하기도 하므로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불안정하다고 생각하고, 덕호의 집 안에서 자신과 사회적 지위가 다른 선비 어머니에게 자신의 속내를 터놓을만큼 선비 어머니와 자신의 위계가 극명하게 나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특히 신천택은 덕호의 집에서 내쫓기면 원소에 연고가 없으므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지역을 떠돌아야 하는 형편이다. 이 신천택의 취약한 지위는 선비 어머니가 신천택에게 가지는 양가감정에서도 확인된다. 선비 어머니는 이런 신천택을 한편으로 ‘잔망스럽게’ 혹은 ‘밧게’ 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를 측은하게 여긴다. 기혼 여성들간의 위계는 그녀들의 남편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신천택과 선비 어머니는 서로 속내를 터놓고 연민할 수 있다.

그렇다면 덕호의 처인 옥점 어머니는 덕호의 고용인인 선비 어머니나 첩인 신천택과는 어떻게 다른가? 덕호와 혼인관계로 엮인 그녀는 안정된 지위를 누리는가? 아이러니하게도, 옥점 어머니는 가문을 이을 남자아이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여러 어린 여성들을 교대로 첩으로 삼으려는 덕호를 보며 항상 불안해하고, 자신의 불안을 첩들의 탓으로 돌리며 첩들과 갈등한다. 신천택 역시 덕호의 집에 기거하면서 수시로 옥점 어머니와 다투었으며, 선비의 친구인 간난이가 덕호의 첩으로서 덕호의 집에 기거할 때도 마찬가지로였다. 옥점 어머니는 첩들과는 다르게 가정 내에서 아내라는 확실한 지위가 보장되지만,¹⁹ 그녀의 가정 내 위상 역시 덕

18 강경애, 최원식 편, 『인간문제』, 문학과지성사, 2006, 43-44쪽.

19 총독부에 의한 가족제도 재편은 과거에 첩보다 우월한 처의 지위를 보장해주던 적자와 서자 사이의 구별을 폐지하였다. 이로 인해 가정 내에서 첩과 첩의 자식이 상대적으로 이전보다 안정적인 지위에 있을 수 있었지만, 처의 경우 오히려 이전보다 지위가 불안정해졌다. (전미경, 「1920~1930년대 ‘남편’을 통해 본 가족의 변화: 『신여성』과 『별건곤』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제29호, 한민족문화연구, 2009, 434-435쪽) 『인간문제』에서 덕호가 그의 첩들에게 아들을 낳으면 덕호의 집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보장해주겠다고 장담

호가 그녀에게 쏟는 애정의 정도가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어머니 저어……큰댁 아버지님과 신천댁과 싸움이 나서 큰집 영감이 생야단을 하셨다누.“

선비 어머니는 귓가가 간지러워서 조금 머리를 돌리며,

“밤낮 싸움이구나. 그래 누가 맞았니?“

“그전에는 큰댁 아버지님을 따리지 않았어? 그런데 오늘은 신천댁을 사정없이 따리데, 아이 불쌍해!“

선비는 무심히 나락 바가지에 손을 넣어 휘저어보면서 얼굴에 슬픈 빛을 띤다.

“남의 첩질하는 년들이 매를 맞아야 하지, 그래 큰어미만 밤낮 맞아야 옳겠니?“

딸의 새침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올봄부터는 선비의 두 뺨에 홍조가 약간 피어오른다.

“그래두 어마이, 신천댁의 말을 들으니 그가 오고 싶어 온 게 아니라 저의 아버지가 돈을 많이 받고 팔아서 할 수 없이 왔다고 그러던데 뭐.”²⁰

옥점 어머니는 덕호의 가족과 고용인들 가운데 가장 지위가 높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다른 고용인들 앞에서 덕호에 의해 구타를 당하기도 하는 등 항상 덕호의 집 안의 권력관계에서 우위를 점하지는 못한다. 물론 처첩 간의 갈등과 첩에 대한 덕호의 애정이 강해도, 옥점 어머니는 여전히 덕호의 집에서 덕호 다음가는 지위를 누린다. 옥점 어머니와 신천댁의 싸움과 덕호의 처벌에 대한 목격담을 전하는 선비의 태도에서 보이듯, 덕호의 고용인들은 옥점 어머니의 권위를 깎아내릴 만한 일들에 대해 쉽게 발설 혹은 공유하지 않음으로서 그녀의 권위를 인정한다. 그러나 이들은 처첩 간의 갈등과 이를 중재하는 덕호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가정 내 권력 관계와 가족관계 내의 지위가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덕호의 애

한 것도 적서차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당대의 제도에 근거한다.

20 강경애, 앞의 책, 25-26쪽.

정이 처첩들의 권력 관계를 결정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아가, 첩이 만약 남아를 출산할 경우, 이 남아가 훗날 덕호의 후사가 되기 때문에 첩의 존재는 옥점 어머니의 지위를 위협할 만하다. 이는 옥점 어머니가 신천택을 비롯하여 간난이, 나중에는 선비까지 덕호가 첩으로 삼거나 관심을 보이는 여성들을 적대하는 원인이다. 그리고 가정 내 각자의 역할에 따른 계층질서보다, 덕호와 성관계를 하는 여성들 사이에는 덕호의 애정에 따라 나뉘는 계층질서가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으로 살펴본 『인간문제』의 기혼 혹은 유사 기혼관계인 여성들 사이에는 뚜렷한 계층질서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들이 덕호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 이들 사이에 권력 관계가 달라지는 순간들이 나타난다. 이 여성들은 모두 가부장적 가족구조와 덕호의 영향력 하에 있다는 공통점을 공유하며, 모두 덕호와의 관계에 따라 권력관계가 변하고, 때로는 계층질서마저 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 소설은 기혼 여성들의 계층질서를 통해 가부장적 가족 질서가 여성들을 어떻게 분리하고 여성들 사이의 갈등을 어떻게 일으키는 지 보여주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선비 어머니, 신천택, 옥점 어머니 세 여성들은 모두 덕호와의 계층질서 아래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으므로, 한편으로 이들이 연대하여 덕호에 맞선다면 이들이 자신들의 지위가 쉽게 바뀔 수도 있다는 불안감으로부터 벗어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여성들은 서로 갈등할지언정 덕호를 중심으로 한 계층질서에 맞서지 않는다.

위의 인용문에서 또 주목할 부분은 신천택에 대해 선비와 선비 어머니가 보이는 태도의 차이이다. 선비 어머니는 신천택이 ‘첩’이기 때문에 이유를 막론하고 구타를 당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선비는 신천택이 첩이 되어야 했던 환경적 요인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원치 않은 이와 함께 살면서 구타를 당해야 하는 그녀의 상황에 동정을 표한다. 이러한 선비의 태도는 처첩 간의 계층질서에 문제의식을 표하는 것이자, 사회구조적인 요인이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처 혹은 첩과 같은 그 사람의 지위를 결정한다는 것을 이해했기에 가능하다. 이는 ‘첩’은 일부일처제라는 정상적인 가족제도 안에 포섭되지 못하므로 존중받지 못해도 당연하다는, 사회적 낙인을 내면화한 선비 어머니의 반응과 상당히 다르다. 이러

한 세대 차이를 선비와 옥순, 그리고 간난이 등 원소가 고향인 10대 여성들의 관계를 중심으로 당대의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3 가부장 중심의 계층질서와 거리를 둔 10대 여성들의 평등한 관계

『인간문제』에는 원소가 고향인 세 명의 10대 여성들이 등장한다. 한 명은 선비, 그리고 그녀의 제일 친한 친구인 간난이, 마지막으로 덕호의 딸 옥점이다. 이 세 여성은 어린 시절부터 서로 잘 알고 지낸 사이로, 옥점이 지주의 자녀이고, 간난이는 잠시 덕호의 첩이었으므로 이들은 덕호를 중심으로 한 계층질서에서 각각 지위가 다르지만 서로 비격식체를 사용한다.²¹ 간난이가 덕호의 첩이 되었을 때, 선비 어머니는 덕호의 고용인 신분이었으므로 선비는 간난이를 덕호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대해야 했다. 그러나 선비는 간난이와 계속 친구 관계로 있기를 희망하고, 간난이 역시 마찬가지였다.

선비는 어머니 곁으로 가서 앉으며,

“어머니, 간난이가 어찌 왔을까?” (…)

간난이는 선비의 돌도 없이 친하던 동무였다. 그러나 덕호의 작은집으로 들어가면서부터는 웬일인지 그들의 사이는 벌어졌다. 그래서 피치

21 이는 선비 어머니가 덕호의 첩이 된 간난이에게 사용하는 격식체와 대비를 이룬다. 선비의 윗세대는 고용주를 중심으로 한 계층질서를 무엇보다 중시하고, 선비 세대는 부모 혹은 배우자에 의해 결정되는 출신성분보다 개인들 간의 관계를 더 중시한다. 이러한 세대 간의 차이는 당시 식민지 조선에서 진행되던 근대화 및 이에 따른 교육의 확장과 이로 인한 사람들의 인식 변화와 더불어 해석할 수 있다. 식민지화 이후, 근대 교육이 사회적 출세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자리잡으면서(손준중, 「일제 식민지 시기 학력 달성의 출현과 분화」, 『한국교육학연구』 제9호, 안암교육학회, 2003, 196-198쪽) 전근대에 남아있던 신분제도의 흔적들은 그 영향력이 점차 줄어들었다. 전근대에 가장 멀시를 받았던 백정들이 자신들에 대한 관습적 차별에 저항하고, 자신들의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부모와는 다른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도록 독려했다.(신중환, 「근대 신분제도의 변동과 일상생활의 재편: 형평운동과 백정들의 일상」, 『동양학』 제47호,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10, 213-220, 222-224쪽) 이처럼 근대 교육은 근대 이전 신분질서의 잔재 소거와 평등한 인간관계 형성에 기여하였다.

못하여 마주치거나 되면 눈웃음으로 인사를 건네고 말 뿐이었다. 무엇보다도 동무였던 그를 하루아침 사이에 상전으로 섬겨야 할 터이니 그것이 싫다는 것보다도 오히려 어려웠던 것이다.²²

위 인용문은 선비의 어머니가 위독했을 때, 덕호와 간난이가 각각 예고 없이 방문한 후에 선비와 선비 어머니가 나눈 대화이다. 위 대화에서도 드러나듯, 선비는 덕호의 첩인 간난이를 친구처럼 호명한다. 간난이가 첩이 된 후, 두 사람은 대화를 피하는 소극적인 방식으로나마 과거의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 인용문에서도 언급되듯이 선비는 간난이를 상전으로 떠받드는 것이 싫은 대신 “어려웠”다고 표현한다. 이 시기에 두 사람이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했기 때문에, 이후 선비가 간난이를 찾아 서울로 갔을 때, 다시 이전처럼 ‘친구’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다.

선비와 옥점 역시 덕호에 의해 만들어진 그들의 관계보다, 그녀들이 과거부터 맺어왔던 또래 친구로서의 관계를 우선시한다. 선비가 옥점의 집에서 안잠자기로 일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두 사람은 비격식체를 사용하여 친구 관계를 유지한다. 옥점과 선비의 비격식체를 사용한 대화는 둘의 격의 없는 관계만이 아니라, 근대적 교육을 받고 근대적 문물을 향유한다는 옥점의 자부심과의 이를 욕망하는 선비를 보여준다.

“넌 어떤 것을 그려 이렇게 놓고 싶니? 말하면 내 그려주마, 그리고 실도 주고.”

선비는 이런 후한 말에 어떻게 가슴이 뛰는지 몰랐다. 그리고 저 고운 실을 가지려니! 하니 앞이 캄캄하도록 좋았다. 선비는 머리를 숙여 생각해보았다. 불타산? 원소? 무엇무엇을 생각하다가 선뜻 짚이는 것이 있었다. 그래서 그는 머리를 들고 말을 하려니 입술이 떨어지지를 않는다. 옥점은 그의 뺨을 바라보며 어젯밤 일이 획 지나친다.

“얼른 말해봐.”

22 강경애, 앞의 책, 49-50쪽.

“난 몰라.” (…)

“난 달걀 낳는 것을…….”

“에이! 송해라! 그게 또 뭐야!”

옥점은 크게 소리쳤다. 선비는 얼굴이 빨개졌다.²³

옥점은 선비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도 수를 가르쳐주고 수 놓은 틀을 주겠다는 호의를 표한다. 게다가 옥점은 자신이 이미 완성한 자수를 선비에게 선물하는 대신, 선비가 원하는 대상으로 직접 수를 놓아주겠다고 제안하여 선비의 욕망을 존중한다.²⁴ 옥점과 선비의 대화방식과, 옥점이 선비를 존중하는 태도에서 두 사람이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계층질서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관계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인용문의 대화는 선비와 옥점의 계급 차이를 보여준다. 옥점은 선비에게 수의 대상은 “사람사람마다 제각기 좋아하는 산수나 무슨 짐생 같은 것”²⁵이 된다고 알려주었으나, 선비는 특정 동물이나 자연물을 언급하는 대신, 구체적인 자연현상인 닭이 알을 낳는 장면을 선호한다. 이는 닭장을 관리하는 선비의 일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반면, 옥점은 선비의 말을 듣고 기겁하는데, 그녀가 생각하는 수의 대상은 도시 중산층의 시각에서 대상화된 자연의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학교에 다닐만한 여유가 있는 이들이 상상하는 ‘자연물’은 가정 안팎에서 가사일을 처리하는 것이 일상인 선비가 상상하는 ‘자연’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옥점과 선비의 계급적 위계는 선비와 간난이의 경우와는 달리 두 사람이 끝내 친구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이유이다. 옥점은 기차에서 우연히 만난 자신의 스승의 아들 신철을 사모하지만, 그가 자신은 뒷전이고 선비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에 질투하여, 선비와 신철이 서로 연애를 했다고 모함하여 결국에는 선비를 쫓아낸다. 선비와 옥점의 대화만을 두고 보았을 때 둘은 ‘친구’지만, 옥점은 선비의 주

23 위의 책, 115쪽.

24 『인간문제』의 서사에서 옥점이 선비에게 수를 가르쳐주게 된 계기는 옥점이 그녀가 좋아하는 신철 앞에서 자신의 가정적인 측면을 뽐내려는 한 방편이었다. 이 논문은 옥점의 목적 대신 옥점과 선비의 대화에서 드러나는 두 사람의 관계성에 보다 주목하였다.

25 강경애, 앞의 책, 114쪽.

거지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둘 사이의 계층질서를 확인한다. 선비와 옥점 사이에는 평등한 친구관계와 위계적인 계급관계가 서로 뒤얽혀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 세 사람을 놓고 본다면, 간난이와 선비는 같은 노동계급성을 바탕으로 한 동지적 관계로, 옥점은 이 둘과 다른 계급으로서 적대적 관계로 보인다. 이것은 『인간문제』가 선비의 궤적과 가사노동 등 여성의 전통적 성역할을 긍정적으로 재현하여 옥점과 같은 신여성을 혐오하는 소설²⁶로 해석되는 원인이다. 하지만 여기서 과연 간난이 및 선비가 옥점과 계급차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서로 적대하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간난이가 노동운동에서 제일 중시하는 의제를 살펴보자. 선비는 덕호의 집을 나온 후, 서울에 사는 간난이를 찾아가고, 간난이는 그녀와 함께 인천의 대동방직공장에 취직한다. 간난이는 이미 서울에서 일할 때부터 비밀리에 노동운동 조직과 연결되어 있었고, 그 조직의 지령을 받아 인천으로 이주하였다. 대동방직공장에서 일한 직후부터 계속 외부의 조직과 소통하며 내부의 노동자들을 선동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그녀가 노동운동에 뛰어든 이유는 다음의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숙직실 앞에서 그는 발길을 멈추고 머뭇머뭇하다니 문을 열고 들어간다. 간난이는, 거 누구까? 하고 생각해보았으나 짐작하는 수가 없었다. 어쨌든 여공이 감독과 밀회하러 들어간 것만은 틀림없었다. 그때 간난이는 어젯밤 신철이가 하던 말을 다시금 되풀이하며 이대로 두면 이 공장 내에서 일하는 수많은 순진한 처녀들이 감독의 농락을 어느 때나 면하지 못할 것 같았다. 따라서 어리석은 저들의 눈을 어서 띄워주어야 하겠다는 것을 깨닫는 동시에 하루라도 속히 천여 명의 여공들이 한 몸이 되어 우선 경제적 이익과 인격적 대우를 목표로 항쟁하도록 인도하여야 하겠다는 책임을 절실히 느꼈다. 옛날에 덕호에게 인격적 모욕을 감수하던 그 자신이 등허리에서 땀이 나도록 떠오른다.²⁷

26 송인화, 「‘모던 걸’의 공포와 ‘동지’의 수사학: 『인간문제』에 나타난 강경애 사회주의 여성 의식 재고(再考)」, 『여성문학연구』 제47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9, 263-266쪽.

27 강경애, 앞의 책, 316쪽.

위 인용문을 통해, 간난이가 노동운동에 열성적으로 뛰어들게 된 이유는 그녀가 “인격적 모독”이라 지칭하는 성폭력 때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인용문에서도 언급되듯, 감독의 숙직실에 들어가는 여성 직공이나, 덕호의 첩이었던 간난이나 모두 자신의 의지로 상대방 남성과 친밀한 관계를 이어나가는 듯 보인다. 하지만 간난이는 이들이 상대방 남성과 친밀한 관계를 맺은 배경에는 이들의 의지가 아닌 남성들의 요구, 그리고 이 남성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여성들의 처지를 우선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성들의 행위를 여성들에 대한 “인격적 모독”으로 결론을 내린다. 즉, 간난이는 노동운동을 젠더 관계와 고용 관계 및 공동체 내의 계층질서가 교차하여 발생하는 이 “인격적 모독”을 해소할 수 있는 방편으로 여긴 것이다.

또한, 간난이는 이 “인격적 모독”이 직접적으로 성폭력의 대상이 되는 여성들에게만 피해를 입히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간난이가 계획하는 “하루라도 속히 천여 명의 여공들이 한 몸이 되어 우선 경제적 이익과 인격적 대우를 목표로 항쟁 하도록 인도하여야 하겠다”는 책임²⁸을 실천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위 인용문에서 간난이가 공장에서 자행되는 성폭력의 연쇄를 끊기 위해서 노동자들의 연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공장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들은 가부장적인 젠더관계와 공장 내 직급 위계 안에서 자력구제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감독이나 공장 측의 협력자가 되기를 자처한다. 결과적으로 이들 여성 노동자들은 노동자들 사이의 연대를 방해하는 존재가 된다. 간난이는 자신이 과거 덕호의 아들을 낳고 싶어하던 것을 상기하며 이와 같은 매커니즘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한다.²⁸ 그렇기에 간난이에게 덕호에 대한 선비의 태도를 확인하는 과정은 중요하다. 간난이는 대동방직공장에 취직하기 전, 선비가 덕호에게 성폭력을 당하고 이후에 덕호의 유사 첩이 되었을 거라 짐작하며 선비에게 “너 덕호라는 놈을 어떻게 생각하니? 그것부터 내

28 이 소설은 간난이의 시각을 통해 감독과 여성 공원들의 성관계가 항상 전형적인 강간이 아닌 여성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재현하여, 공장 내 성폭력이 정치적 쟁점이 되기 어려운 배경을 다룬다. (루스 배러클러프, 노지승 역, 『여공문학: 섹슈얼리티, 폭력, 그리고 재현의 문제』, 후마니타스, 2017, 127-131쪽)

게 말해라”²⁹라고 요구한다. 위의 인용문을 참고해보면, 간난이의 질문은 공장에서 선비가 원소에서 겪었던 것처럼 성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선비가 눈앞의 이익만을 생각하여 성폭력 가해자들과 협력할지, 혹은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분노를 투쟁의 원동력으로 삼을지 확인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이 소설의 배경이 인천으로 바뀐 이후에도 덕호는 간난이와 선비에 의해 고용주로, 혹은 위계를 이용하여 여성들을 성폭행하는 인물의 대표로 계속 언급된다. 선비가 본격적으로 계급의식을 각성하는 과정에서도 덕호는 다시 언급된다. 선비는 민수를 죽인 자가 덕호이고, 첫째와 덕호를 대조하면서 과거 첫째의 출신성분을 이유로 그를 경계했던 자기 자신을 반성하면서 노동계급으로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적과 동지의 차이를 분명하게 자각한다. 덕호는 원소를 떠난 이들과 더 이상 교류하지 않지만, 그는 간난이와 선비가 계층질서를 몸소 체감하고, 이로 인해 계급의식에 눈뜨는 계기를 제공한 인물로서 소설 안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된다. 두 사람이 계급의식을 자각하는 과정은 가부장적 젠더 위계와 성차별적 섹슈얼리티가 농촌의 위계적 사회질서, 자본주의적 노동 착취, 그리고 계급 투쟁과 교차하면서 진행된다.

이 소설에서 성 착취는 고용관계, 마을이나 혹은 돈을 매개한 계층질서에서 나타나는데, 옥순은 다른 두 여성들과는 달리 그러한 계층질서에 놓인 적이 없으므로 둘의 간극은 더 벌어지는 듯하다. 그러나 옥순이 과연 가부장적 젠더 위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지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옥순은 중등교육을 받았고, 지주이자 면장인 아버지를 두고 있으므로 한편으로는 그녀는 모든 것을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옥순은 여학교를 졸업한 후에 부모님 집으로 돌아와 피아노 치는 것에만 열중한다. 오늘날의 시각에서 옥순의 모습은 의아해 보일 수 있으나, 1931년에 서울 소재 여학교를 졸업한 식민지 조선 여성들의 60% 이상이 가사종사자가 되거나 그 나머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30% 이상은 상급학교에 진학했다는 통계를 확인해보았을 때,³⁰ 당대 현실을 반영한 재현

29 강경애, 앞의 책, 302쪽.

30 식민지 조선에서 여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 범위는 넓지 않았고, 그마저도 많은 수가 일본인 여성들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학력의 식민지 조선 여성들이 자신들의 학력 수준에 맞는 일을 할 기회는 많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상당수의 여학교 졸업생들

으로 보인다. 옥순은 근대적 교육을 받았고, 여러 진로를 상상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되지만, 그녀가 특출난 의지와 욕망이 없는 한, 당대 사회가 그녀에게 기대하는 역할, 즉 누군가의 ‘아내’가 되는 것 이상의 삶을 상상하기 어렵다.³¹ 결국 여학교를 졸업한 옥순이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는 이상, 가부장적 가족제도 하에서 남편을 보조하고 가정을 꾸리는 아내와는 다른 역할을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는 그녀가 훗날 사회적 명사가 될 가능성이 높은 신철의 호감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세 여성들은 다른 방식이기는 하지만 가부장적 사회구조 하에서 여성에게 주어진 역할 안에만 머물도록 제약을 받는다.

옥점과 간난이 및 선비는 그녀들이 독자적으로 형성한 친구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등 덕호를 중심으로 한 가부장적 질서와는 거리가 있는 방식을 고수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간난이와 선비는 서로 연대하며 가부장적이지 않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모색하는 데 반해, 옥점은 결국 두 여성들과 연대의 고리를 찾지 못한다. 이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사회구조에 대한 이들의 태도이다. 옥점은 근대교육을 받았고 근대적 문화생활을 누렸지만, 앞으로 자신의 어머니처럼 누군가의 아내로 살아가야 하는 삶에 불만이 없다. 이는 옥점의 말대로 만약 덕호가 아들을 낳지 못한다면 “아부지 재산은 다 나 가질 것”³²인만큼 그녀는 앞으로 물질적으로 궁핍해질 염려는 없으므로, 상대적으로 가부장적 사회 구조에서 발생하는 성차별에 둔감하다. 하지만 간난이와 선비는 옥점과 달리 아무런 물질

은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는 이상 결혼 혹은 결혼준비를 해야 했다. (김수진, 『신여성, 근대의 과잉』, 소명출판, 2009, 81-89쪽.)

31 1928년 2월 5일 『동아일보』 기사를 참고하면, 25%를 훨씬 상회하는 여학교 학생들이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을 희망했으나, 1932년의 자료를 참조하면 진학 및 취업한 학생들은 10%에 불과하다. 이렇듯 당시 식민지 조선의 경제구조 하에서 아무리 교육수준이 높다고 하더라도 식민지 조선인 여성으로서 결혼이나 가사종사 이외의 다른 일을 하기는 어려웠다. 남성 조선인 지식인들도 여성 교육의 목적을 ‘현모양처’가 되기 위한 것이라고 역설할 정도로 교육받은 여성들에게 다양한 사회활동 기회가 주어져야 할 필요성은 남성중심적 사회 분위기 속에서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 (전희진, 「식민지 초기 신여성의 공적영역으로의 초대와 그 실재: 문학의 장에서의 일세대 여성작가의 배제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제 88호, 한국사회사학회, 2010, 246-251쪽.)

32 강경애, 앞의 책, 110쪽.

적 기반이 없으며 그녀들의 생계를 위해서는 항상 어딘가에 고용되어 일해야 한다. 노동자로 살아가야만 하는 상황에서 이들이 자기모멸감 없이 자신의 개별성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노동현장에서 종종 발생하는 성 착취에 저항하고, 이것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에 문제제기 해야한다.

오드리 로드는 그녀의 저명한 저서 『시스터 아웃사이더』의 「주인의 도구로는 결코 주인의 집을 무너뜨릴 수 없다」에서 여성들의 차이를 살피는 일은 여성들 각각의 상황을 서로 이해하고 나아가 공동전선을 구축하고 생존을 위한 궁극적 변화를 기획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무엇보다 “주인의 도구로는 결코 주인의 집을 무너뜨릴 수 없”³³음을 강조한다. 즉, 이 사회 구조를 지키기 위해 지배계급이 활용하는 수단들로는 기존 사회구조의 변화를 이뤄낼 수 없다는 의미이다. 로드의 주장처럼, 옥순은 ‘주인의 도구’인 계급관계와 사적소유에 문제의식이 없으며, 자신이 경험하는 소외와 불편한 감정을 이 두 도구로서 해소하고자 한다. 그러나 ‘주인의 도구’에 과거에는 잠깐 접근했을지도 모르나 이 도구의 한계를 직접 실감한 선비 및 간난이는 이 도구가 자신들의 불편한 상황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원인임을 깨닫고 이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 옥순은 여러 면에서 그녀의 부모와는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만, 궁극적으로 자신과 계급이 다른 또래 여성들과 연대하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차이’에서 기인한다.

오드리 로드는 여성들이 서로의 ‘차이’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연대의 가능성이 달라진다고 보았다. 그녀는 여성들이 연대하기 위해서는 여성들 스스로가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차이에 대한 공포와 혐오를 마주”³⁴해야 한다고 본다. 이는 『인간문제』에서 기혼 및 유사 혼인관계에 있는 여성들이, 그리고 선비 및 간난이와 옥점이 서로 유사한 문제를 공유하고 있으면서도 연대하지 못하는 원인을 설명해준다. 이 여성들은 서로의 “차이에 대한 공포와 혐오”가 무엇보다 앞서기 때문에 갈등하고, 서로를 경계 짓기에 바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선비 어머니와 신천댁처럼 혐오와 공감, 미움과 연민이 교차하기도 하고, 선비와 간

33 오드리 로드, 주혜연·박미선 역, 「주인의 도구로는 결코 주인의 집을 무너뜨릴 수 없다」, 『시스터 아웃사이더』, 후마니타스, 2018, 178쪽.

34 위의 책, 181쪽.

난이처럼 서로 다르다고 생각했다가 어느 순간 동질감을 느끼기도 한다. 이 소설의 여성들 사이에 서로 다른, 혹은 공유하는 계층질서가 교차하면서 작동하는 방식을 4장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4 경쟁하고 충돌하는 계층질서³⁵가 만들어내는 급진적인 효과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인간문제』는 계층질서를 중심으로 서사가 구성되어 있다. 이 계층질서는 고용주와 피고용인, 마을의 유지와 그렇지 못한 이들, 남성과 여성, 남편과 (유사) 아내와 같은 젠더와 계급이 그 원인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대로 이 계층질서는 언제나 안정적이지만은 않으며, 여러 계층질서가 교차하여 작동하면서 한때는 더 우세했던 계층질서가 약화되기도 하고, 약했던 계층질서가 더 강력해지기도 한다. 그리고 때로는 계층질서를 뒷받침하는 이분법적 구도가 무질서에 빠지기도 한다. 앞서 살펴본 덕호의 첩들과 선비 어머니의 관계나, 옥순과 선비가 사용하는 어체를 그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소설은 계층질서가 작동하는 가운데 발생하는 모순과 균열들을 재현하는 동시에, 새로운 논리로 기존의 계층질서에 도전하는 양상들 역시 간난이와 선비를 통해 재현한다. 또한, 계층질서들은 서로 중첩되면서 서로의 계층질서를 방해하기도 한다. 이 장에서는 우선 계층질서 내부의 모순과 균열을 살펴보고, 계층질서들이 중첩되면서 어떤 계층질서가 다른 계층질서보다 더 강력하게 작동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간난이는 대동방직공장에서 직공으로 일하지만, 자신을 공장에 의해 고용된 직원으로 보는 대신 자본주의적 고용제도와 가부장적 성착취 구조를 파괴하려는 목적을 위해 임시적으로 관리자들과 고용주의 명령에 따른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관리자들의 행태와 공장의 고용체계를 항상 노동자의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동료들에게도 자신과 같은 비판적 시각을 키워주고자 한다. 그녀는 현재 공장은 물론 사회에서 작동하는 계층질서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노동운동에 참여하여 계층질서에 도전한다.

선비 역시 간난이의 활동을 지지하는 한편, 자신의 독자적인 방식으로 기존

35 “경쟁하고 충돌하는 계층질서”라는 표현은 캐롤라인 레빈, 앞의 책, 250쪽을 참고하였다.

계층질서의 이분법에 도전한다. 선비는 공장에서 간난이의 노동운동과 감독들의 여공들에 대한 성폭력을 지켜보면서, 자신의 계급적 위치를 중심으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재구성한다. 선비는 그녀의 어머니의 믿음과는 달리 덕호가 민수를 죽였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성노동자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같은 또래인 첫째를 팔시했던 과거를 후회하며 첫째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선비의 이 같은 변화는 덕호가 신뢰하지 못할 인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현재의 계층질서 안에서 덕호와 같은 지배계급이 민수나 선비 같은 피지배계급에게 존경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자각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선비는 이 구조적인 계층질서를 승인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과 동질적인 계급인 첫째와 함께 이 구조에 맞서고자 한다. 이 때 선비의 태도에 주목해보자.

선비는 첫째를 꼭 만나보고 싶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계급의식을 전해주고 싶었다. (...) 그러나 선비는 어서 바빠 첫째를 만나서 그런 개인적 행동에 그치지 말고 좀더 대중적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다.³⁶

위 인용문에 나타난 계층질서를 분석해보자. 선비는 첫째에게 자신이 느낀 것과 배운 것을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싶어한다. 이는 선비가 노동계급(하위) 여성(하위)이자 성폭력 피해자(하위)이지만, 그녀는 자신을 계급의식을 내면화한 혁명적 노동자(상위)로 정의하고, 앞으로 사회를 바꿔나갈 노동자(상위)의 편에 서고자 하며, 그 첫 번째로 첫째를 도와주는 사람(상위)가 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소설 안에서 기존의 계층질서는 점차 변화한다. 기존에 낮다고 전제되었던 것(노동계급, 여성, 성폭력 피해자)이 높은 것(혁명적 노동자, 사회를 바꿀 주체, 조력자)이 되거나, 높은 것(지배계급, 성폭력 가해자, 남성)이 다가올 미래가 추구할 가치에 비추어보았을 때 낮은 것(권력 실각, (여성) 노동계급의 적, 학습자)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선비의 실천은 젠더와 지배·피지배 그리고 가해·피해로 결정되는 기존 계층질서의 위계를 전복하고, 노동자가 사회를 바꿀 주체가 되어

36 강경애, 앞의 책, 367쪽.

기존의 계층질서를 혼란에 빠뜨리며, 노동자들의 젠더에 따른 간의 계층질서 경계를 모호하게 한다.³⁷ 나아가, 선비가 첫째를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이유는 선비의 우수성을 그에게 과시하기보다, 그와 연대하려는 의도가 더 강하다. 선비는 젠더 계층질서로는 포착되기 어려운 ‘연대’를, 계층질서로 구성된 사회 질서 사이에서 발견하고, 만들어가려는 것이다.

여기서 선비가 첫째보다 더 선진적인 노동자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자임하는 이유를 살펴보아야 한다. 선비는 간난이와 함께 공장에 근무하던 시절에도 간난이가 덕호나 공장의 관리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에 동조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이해하기는 했으나 이 이론을 바탕으로 공장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의 자신의 경험을 해석하는 자원으로 사용하지 못했다. 그러나 간난이가 사라진 후 선비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과거를 재해석하고, 앞으로 자신이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설정한다. 여기서 과거에 덕호가 선비를 학교에 보내주겠다고 장담하자, 선비가 그를 더 신뢰하게 되었다는 것을 상기해보자. 선비는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원소에서부터 서울로 올라가 학교에 다니고 싶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자면, 선비는 무엇인가를 배우고자 하는 욕망이 강했고, 이 배움이 그녀에게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주리라고 기대하였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서울 혹은 도시로 이주하여 공교육의 수혜는 받지 못했지만, 공장에서 노동자들과 함께, 때로는 ‘스스로’ 학습하면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한다.

선비의 학습은 자크 랑시에르의 학교와 학습 및 교수 능력에 대한 주장을 상기시킨다. 자크 랑시에르는 『무지한 스승』에서 빈자들에게 학교 교육이 필수적이며, 이들은 인가받은 교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고 선전하는 진보주의자들이 빈자들이 “고유한 능력으로 스스로 지도할 수 있다는 것,” “스승 없이 배울 수 있는 가능성”³⁸을 은폐하려 했던 것을 지적한다. 학교교육, 특히 공교육은 누구나 꼭 필요한 내용을 학습하여, 평등한 지적 능력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

37 이상으로 계층질서 형식이 역전되는 상황을 분석하는 방법론은 레빈이 『안티고네』를 분석하는 방법론을 참고하였다. 캐롤라인 레빈, 앞의 책, 210-211쪽.

38 자크 랑시에르, 양창렬 역, 『무지한 스승: 지적 해방에 대한 다섯 가지 교훈』(개정판), 궁리, 2016, 245쪽.

다. 랑시에르는 절대적으로 배움과 교수의 권위를 독점하는 기관이 되려는 학교 교육의 욕망이 빈자들의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 학습하는 능력, 그리고 지도하는 능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한다. 선비의 사례는 랑시에르 주장의 한 예가 될 수 있다. 선비는 원소와 공장에서 계급갈등을 몸소 경험하면서 스스로 계급의식을 깨우치고, 아버지의 사망 원인은 덕호의 폭행이 아니라는 어머니와 자신의 믿음이 틀렸다는 것을 자신에게 가르친다. 즉, 선비는 학교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자신의 경험과 간난이와 같은 노동자 계급의식을 내면화한 노동자들을 보면서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를 지도하는 ‘무지한 스승’으로서의 능력을 이 소설에서 보여준다. 선비는 옥점이처럼 근대적 교육기관에서 수학하지 못했지만, 옥점이와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을 지도할 수 있는 우수한 지적 능력을 바탕으로 혁명적인 노동자가 되어가는 과정은 교육기관 재학 유무로 지적능력의 고하를 가르는 계층질서의 강고함을 뒤흔드는 것이다. 즉, 『인간문제』는 여러 계층질서들이 교차하면서 서로에 영향을 미치고, 전복시키며, 때로는 선비가 첫째에 대해 느끼는 연대의식처럼 예측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5 결론

이 논문은 강경애의 소설 『인간문제』의 형식적 특성을 분석하여, 이 소설이 당대 사회의 계층질서와 이에 포섭되지 않는 실천들을 어떻게 재현하는지 밝히고자 했다. 지금까지 이 소설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이 소설을 통해 강경애라는 작가의 성격을 밝혀내고, 이를 바탕으로 강경애와 그녀의 작품을 동일시하였다. 그러나 이 논문은 『형식들: 문학도 사회도 문제는 형식이다』의 저자 캐롤라인 레빈이 제시한 문학 텍스트의 형식을 통해 문학의 구조만이 아니라 문학 내용 안에 존재하는 사회 정치적인 패턴까지 밝혀내는 방법으로 『인간문제』의 계층질서 형식들을 여성 인물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인간문제』의 정치적 메시지를 규명해보고자 했다.

우선 이 소설의 기혼 여성 혹은 유사 혼인관계에 있는 여성들 사이에 존재하는 계층질서 형식들을 분석하였다. 이 여성들 사이에는 지주 덕호를 중심으로 마

을에 존재하는 지주의 (유사)아내와 고용인, 혹은 본처와 첩과 같은 뚜렷한 위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성별 이분법을 기반으로 한 가부장적 계층질서에서 취약하다는 공통점을 공유한다. 이들은 때로는 덕호를 중심으로 한 계층질서에 완전히 따르지 않으면서 이 계층질서를 흔들기도 하지만, 이 계층질서를 넘어서는 연대를 형성하지는 못한다.

다음으로 이 소설의 10대 여성들 사이에 존재하는 계층질서를 기혼여성들의 것과 비교하면서 분석하였다. 이 여성들 사이에는 원소 마을의 질서보다 근대적 질서가 더 강력하게 작동하여, 서로 비격식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이들은 서로의 계급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두 가부장적 계층질서 하에서 취약하다. 선비와 간난이는 덕호의 강간으로 인해 덕호의 첩 혹은 애인이 되어 그에게 종속되는 경험을 공유하고, 옥점은 학교를 졸업한 후에 결혼 이외의 다른 진로를 찾기 어렵다. 그러나 덕호의 딸인 옥점은 덕호를 중심으로 한 계층질서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고, 그녀는 이를 이용하여 선비를 자신의 집에서 몰아낸다. 이 여성들은 부모세대와는 다른 근대적 계층질서를 바탕으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듯 하지만, 결국 부모세대와 유사한 계층질서를 반복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소설은 고용관계와 마을 유지가 중심이 된 계층질서가 매우 강한 것으로 재현하지 않는다. 이 소설의 후반부에서 주인공인 선비는 계급관계와 젠더 계층질서가 일치한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자신을 지적인 측면에서 그녀와 동질적인 계급들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며, 첫째와 같은 노동계급들을 지도하는 존재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한다. 그녀가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지도한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형성된 계층질서는 기존의 계급관계와 젠더 계층질서를 약화시키며, 여성 노동자의 시각을 중심으로 한 정치행위 실천을 예고한다.

여러 선행연구들의 서로 상반되는 해석이 보여주듯이 『인간문제』는 다양한 함의를 내포한 텍스트이다. 그러나 이 텍스트를 작가의 전기적 생애를 토대로 추론한 작가의 성향이나 강경애의 다른 텍스트와의 관계에서만 해석하려 한다면, 이 텍스트의 형식이 당대의 사회적이고 역사적 맥락과 호응하면서 생산한 다양한 정치적 의미들을 놓칠 수 있다. 앞으로 더 많은 연구들이 『인간문제』를 새로운 방법론으로 연구하여, 이 텍스트가 내포한 잠재력을 보다 더 많이 발견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강경애, 최원식 편, 『인간문제』, 문학과지성사, 2006.

단행본

김수진, 『신여성, 근대의 과잉』, 소명출판, 2009, 81-89쪽.

김윤식, 『(속)한국근대작가론고』, 일지사, 1981, 238-245쪽.

루스 배리클리프, 노지승 역, 『여공문학: 섹슈얼리티, 폭력, 그리고 재현의 문제』, 후마니타스, 2017, 127-131쪽.

오드리 로드, 주혜연·박미선 역, 『시스터 아웃사이더』, 후마니타스, 2018, 147-181쪽.

자크 랑시에르, 양창렬 역, 『무지한 스승: 지적 해방에 대한 다섯 가지 교훈』(개정판), 궁리, 2016, 191-262쪽.

캐롤라인 레빈, 백준걸·황수경 역, 『형식들: 문학도 사회도 문제는 형식이다』, 앨피, 2021, 25-74, 193-250쪽.

Sungyun Lim, *Rules of the House: Family Law and Domestic Disputes in Colonial Korea*,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9, pp. 81-94.

논문

강이수, 「사회학자가 본 우리소설 식민지하 여성문제와 강경애의 『인간문제』」, 『역사비평』 제24호, 역사비평사, 1993, 335-348쪽.

박구비, 「여성들 사이, 역설의 글쓰기」, 『이화어문논집』 제51호, 이화어문학회, 2020, 665-680쪽.

배상미, 「식민지시기 무산계급 여성들의 사적영역과 사회변혁: 강경애 문학의 중심으로」, 『상허학보』 제44호, 상허학회, 2015, 355-400쪽.

서정자, 「강경애연구: 새로운 평가를 위한 시고」, 『원우논총』 제1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원우회, 1982, 117-146쪽.

_____, 「일제강점기 한국 여류소설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7,

60-91쪽.

손병규, 「20세기 전반 농촌 가족의 거주이동: 계층성과 혈연성의 관점에서」, 『대동문화연구』 제112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20, 409-449쪽.

손준중, 「일제 식민지 시기 학력 담론의 출현과 분화」, 『한국교육학연구』 제9권 제1호, 안암교육학회, 2003, 93-115쪽,

송인화, 「‘모던 걸’의 공포와 ‘동지’의 수사학: 『인간문제』에 나타난 강경애 사회주의 여성 의식 재고(再考)」, 『여성문학연구』 제47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9, 257-283쪽.

이경림, 「사랑의 사회주의적 등정의 불가능성」, 『한국현대문학연구』 제55호, 한국현대문학회 2018, 69-107쪽.

이상경, 「강경애론: 30년대의 궁핍형소설고」, 『한국학보』 제10권 제4호, 일지사, 1984, 135-174쪽.

임금복, 「강경애 소설에 나타난 지식인 연구(Ⅱ)」, 『국제어문연구』 제13호, 국제어문학회, 1991, 552-559쪽.

신중환, 「근대 신분제도의 변동과 일상생활의 재편: 형평운동과 백정들의 일상」, 『동양학』 제47호,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10, 209-229쪽.

전미경, 「1920~1930년대 ‘남편’을 통해 본 가족의 변화: 『신여성』과 『별건곤』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제29호, 한민족문화연구, 2009, 405-438쪽.

전희진, 「식민지 초기 신여성의 공적영역으로의 초대와 그 실재: 문학의 장에서의 일세대 여성작가의 배제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제88호, 한국사회사학회, 2010, 229-265쪽.

최병구, 「프로문학의 감성과 여성, 공/사 경계 재구축의 구조: 강경애 문학을 중심으로」, 『구보학보』 제23호, 구보학회, 2019, 291-320쪽.

Samuel Perry, “The Context and Contradictions of Kang Kyŏng-ae’s Novel “In’gan munje,” *Korean Studies*, Vol. 37,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13, pp.99-123.

Abstract

The Radical Narrative of the “Ignorant School Master”

Created by Intersecting Hierarchical Orders

: Kang Kyöng-Ae’s *Ingan Munje*

Bae Sangmi

This paper examines the form of hierarchy in Kang Kyöng-Ae’s novel *Ingan Munje* (Human Predicament, 1934) by following the approach presented in Caroline Levine’s *Forms: Whole, Rhythm, Hierarchy, Network* (2015). This study aims to clarify the how the forms of hierarchy works that seek to explain the women within the novels collide with each other, eventually developing into radical politics. Married or pseudo-married women, who have a different social statuses in the village as a wife of a landlord, a concubine of the landlord, and a widow of a servant of the landlord, suffer from similar disadvantages under patriarchal hierarchy; however, the other hierarchy that exists between them prevents them from organizing solidarity. The teenage girls destabilize the class hierarchy between them by using an informal communication style. However, unlike Sönbi and Kannani, Okchöm does not make any solidarity with them to protect her status in Wönso. The solidarity between Sönbi and Kannani evolves into something that overthrows the previous order. Sönbi cultivates her own intellect and reaches a level of intellectual maturity above that of other people in the homogenous class such as ch’ötch’ae. In the end, she suggests a new radical politics that disrupts the dichotomy of class and gender hierarchy.

Key words: *Ingan Munje*, Hierarchy, Female figures, Radical Politics, Gender, Class

본 논문은 2021년 11월 16일에 접수되어 2021년 11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21년 12월 4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